

“세계한인회장대회, 이제 동포가 직접 이끈다”

- 2026년 제1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 개최, 운영규정 제정
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2월 12일(목) 2026년 제1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, 「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」을 제정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운영규정 제정은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정부 주도가 아닌 동포 사회가 직접 이끄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.
- 특히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원칙인 ‘경청’과 ‘통합’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한인회장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개청 이후 첫 「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」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
-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인 한인회의 리더들이 참여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앞으로 ‘자율’, ‘참여’, ‘책임’을 핵심 가치로 하여 운영된다.
- 대륙별·국가별·지역별 한인회의 대표 한인회장들이 대회의 방향과 운영을 주도하면서,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동포 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.
-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제정된 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먼저, 앞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동포사회 주도로 이뤄진다.
대회 운영의 최고 의결·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재외동포청장에서 민간으로 이양한다. 운영위원들이 재외동포 중에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.
- 운영위원회는 세계한인회장대회의 기본계획 및 주요 프로그램 등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간다.

- 다음으로,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한 한인회장 전원이 참여하는 세계한인회장총회를 신설하여 동포 사회의 공통 현안을 논의한다. 이는 한인사회의 대표성을 가진 네트워크로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마지막으로, 한인회간 갈등을 동포사회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대륙별 총연합회와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분쟁 조정·중재 절차를 마련하였다.

□ 한편, 운영위원회는 이번에 제정된 「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」에 따라 오는 3월 9일(월) 초대 민간 운영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.

- 자세한 선거 일정 및 방법 등은 재외동포청 누리집(www.oka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□ 운영위원장인 김경협 청장은 “국민주권 정부의 기초에 맞춰 우리 청은 ‘동포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있게 답하겠다.’고 약속했다.”면서,

- “이번 운영규정 제정은 작년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한인회장들이 한뜻으로 결의한 한인회의 주도적인 대회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.”고 강조했다.

- 이어, “재외동포청은 한인사회가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	책임자	과 장 이정환 (032-585-3195)
	재외동포협력총괄과	담당자	서기관 정다비 (032-585-3200)
			주무관 조성제 (032-585-3205)